

살고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보 도 자 료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인천광역시	
배포일자		2021년 3월 5일(금) 총 2매			
담당 부서	국제협력과	담당자	• 아시아팀장 • 담당자	명 창 준 ☎440-3201 이 주 희 ☎440-3202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16시 30분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각국 주한 외국대사, 새해 들어 인천 방문 잇따라
상호 우호증진 및 교류협력 논의**
- 스리프리아 란가나탄 주한 인도 대사 -
- 몸타즈 자흐라 발로치 주한 파키스탄 대사 -

- 작년 한 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움츠러들었던 인천시의 국제교류가 새해 들어 활기를 띠고 있다.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스리프리아 란가나탄 주한 인도대사가 올해 들어 인천을 방문하는 첫 번째 주한 외국대사라고 밝혔다. 작년 예정되었던 인천 방문이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연기된 후 해를 넘겨 성사가 된 케이스다.
- 박남춘 시장은 지난 5일 송도 G타워에서 스리프리아 란가나탄 주한 인도대사와 면담을 가지면서,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의 지속으로 왕래 및 교류가 어려워진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올해는 인도의 자매도시인 콜카타와의 활발한 교류를 희망하면서, 코로나 대응 경험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그리고 인천이 ‘인천형 뉴딜정책(디지털, 그린, 바이오, 휴먼)’ 추진 중임을 알리며, ‘세계의 약국’이라 불리는 바이오 분야(제약산업) 강국인 인도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입주해 있는 인천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했다.
- 한편 몸타즈 자흐라 발로치 주한 파키스탄 대사와의 면담에서는 서남아, 중앙아, 중국, 중동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파키스탄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파키스탄 정부의 강한 신뢰와 지방정부 간의 국제교류에 앞장 서고 있는 발로치 대사의 노력을 발판으로 앞으로 인천시와 파키스탄과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
- 아울러, 국내 여타 도시들보다 강력하고 선제적인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인천의 코로나 대응 경험에 대해 공유하는 한편, ‘인천형 그린뉴딜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탄소중립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대한 관심을 부탁했다.
- 강병진 시 국제협력과장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가 중요해진 만큼 주한 외국대사의 인천 방문은 ‘인천형 뉴딜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인천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15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 동영상은 인천시 웹하드(only.webhard.co.kr)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